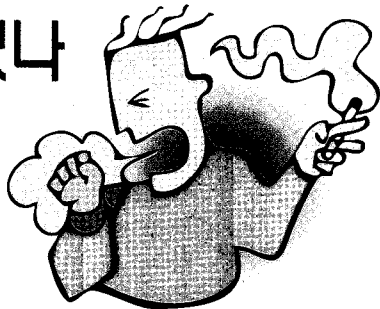


# 금연 캠페인 문제 없나

김강석(SBS 사회1부 차장)



**연**초부터 금연 운동이 불기 시작했다. 주로 TV 등 방송을 중심으로 각 언론매체들이 금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연 운동은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 처럼 일어났다.

이 운동에 불을 당긴 이는 잘 아다시피 코미디계의 황제인 이주일씨였다. 이 씨가 지난해말 폐암에 걸리자 담배를 피워 자기 처럼 되지말라는 호소를 하면서 국민적인 금연 움직임까지 일어난 것이다.

언론은 경쟁적으로 이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취재하는데 힘을 쏟았고 그의 메시지가 전파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언론들이 그동안 이 중요한 금연 캠페인을 도대체 왜 하지 않았던가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생각될 정도로 울 들어서는 비중을 두고 다뤘다. 실제 이런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금연 움직임을 불러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주일씨의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주의적이고도 전체주의적인 금연운동을 그만두라는 애연가들의 반발이 있었고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주일씨를 그만 괴롭히자라는 자성의 목소리마저 나왔다. 기자 역시 지난 2월 경기도 일산의 암센터로 이주일씨를 찾아가 인터뷰하고 이를 보도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이씨가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금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이씨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고민했다. 더욱이 이씨의 부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남편을 성가시게 하는 언론을 원망하기도 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일본 NHK 특파원은 한국 언론들

의 이런 보도자세는 상당히 독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흡연과 같이 늘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일제히 보도하며 큰 일이 난 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비쳤다. 언론학에서는 한국 언론의 이런 태도를 갑자기 꿰었다 식어버리는 '냄비 저널리즘' 혹은 파도 처럼 밀려왔다 사라져버리는 '웨이브(Wave) 저널리즘'이라고 지적한다.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금연 운동 만큼은 호들갑을 떨만한 가치가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담배 흡연이 마약으로 분류된 마리화나보다 더 해롭고 습관적인 마약성도 더 심하다고 결론내리고 어느 곳이든 실내에서는 흡연을 포기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를 주장하면서도 흡연에서 만큼은 왜 이렇게 관대한지 알 수가 없다. 이제는 쿠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뒤쳐진 흡연 폐해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각을 일으키기 위해선 다소 욕을 듣더라도 금연 캠페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언론은 보고 있으며 기자도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도 담배로 인해 숨져가거나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 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불문가지이다. **2011.11.11**